

순창 장애인복지관 건립 희소식

2022년 개관 앞두고 특교세 10억원 확보

황숙주 순창군수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중 하나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군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2019년도 행안부 특별교부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순창을 남계리 일대에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민

선 7기 임기내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그 동안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306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과 한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많은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황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기존에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공간으로 쓰던 노인회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관련 단체 모두 환영하고 있다.

군은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청 관계자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장애인복지관 신축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복지관 건립으로 건물내 장애인 직업교실, 심리치료실, 재활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 건립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어, 주민들이 높은 기대감을 들어내고 있다.

건립예정지가 순창을 남계리 일대 군유지로, 토지매입이 큰 차질없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진입도로 부지만 확보하면 부지 매입이 완료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민선7기 공약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확보되어 장애인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지.

남원시,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5건 선정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체험·공연 등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5건이 2020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전통산사 문화재,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으로 총 5건이며,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문화재야행은 '문화재 야행 광한루의 밤풍경'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운봉고원에 있는 황산대첩비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일원에서 '운봉고원 왕조를 깨우다'를 주제로, 문화재를 역사교육의 장이자 체험학습으로 활용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에 처음 시행하는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남원 풍심재를 중심으로 '天地人 종가 고택과 함께하는 남원풍심-감/동/육/락'이라는 주제로 종가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를 교육, 공연, 체험 등 융·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7년 연속으로 선정된 남원향교를 활용한 '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 라는 주제로 향교를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게 된다.

전년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천년의 향기 실상사 라는 주제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임사회 개회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17일~10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2020년도 신규 사업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할 예정이다.

17일 개회식 등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주

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며, 마지막 10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 후 폐회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추진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10월 8일 스위트호텔서 개최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모든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0일의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낯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해 2005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가을의중심 10월과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자라는 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정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산부와 가족을 초청해 ▲아기찬가 시 낭송 ▲

남원시 흥보대사 개그맨 김범준의 산모태교 강의 등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제공과 엄마와 아기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으며, 기념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임산부와 가족은 남원시 보건소(063-620-7942, 7955)로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참석지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영양제(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유수유클리닉(매달 둘째주 화요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내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추진 순항

신규·계속 총 7개 사업 35억원 확보

임실군이 내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17일 군에 따르면 내년 하수도분야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사업 3개소 등 총 7개 사업에 국비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하수도분야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등이다.

이 사업은 가정 내 생활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모아 미생물 등의 자정작용 원리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침전·분리 후 깨끗한 물로 방류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다.

하수도시설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 한 해, 평균 하나의 사업정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런 가운데 임실군은 유례없이 우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3건에 대해 2022년까지 총 133억여 원을 지원받는 등 큰 성과를 일궈냈다. 당초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우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기재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심 민 군수를 필두로 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임실군 하수도분야 예산규모는 군비를 포함 54억원 규모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에 걸맞는 선진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주민들의 하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가을철 야외활동 시 감염병 주의 당부

임실군은 가을철 야외 노출이 많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외작업과 활동 시에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쫓겨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과 오한, 근

육통·두통·피부발진, 부스럼까지 형성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회복될 수 있기에 적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과 더불어 벌 쏘임, 뱀 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활동 시 밝은색 옷과 모자, 장화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농어촌마을 하수도 가동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일원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최근 준공됨에 따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순창군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 국비와 군비 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호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착수해 9월 준공했다.

서호마을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최대 40m³/일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서호마을일원 83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마을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고 화장실·싱크대·샤워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마을하수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서호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내방객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하수시설 가동으로 섬진강 수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정화조를 폐쇄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고 매년 분뇨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군은 서호지구 외에도 현재 동계면 내룡지구와 신촌지구, 북흥면 비석지구, 쌍치면 피노지구 등 4개 지구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남원시로 귀농귀촌한 농업인에게 영농 경험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조기적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습 및 사례중심형 영농교육을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계 이론 및 실습, 채소분야, 과수·특작, 발작물·수도작에 관한 재배기술교육과 현지농가의 사례발표, 귀농귀촌 전라과 지역민들과의 소통 및 화합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총 망라되었다.

또한 강의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영농현장을 방문해 보고, 듣고, 실습하며, 경험담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편성해 단순이론에만 그치는 교육에 비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선도농가 및 귀농인 간의 상호협력력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생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생적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